

創立 15周年을 맞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9월 1966년, 71개 회원단체를 母體로 설립된 科總은 이제 工學, 理學, 의 총본산으로 성장했다. 특히 1978년 3월 閔寬植박사가 제 5대 會長으로 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은 이미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나 科總은 이에 만족하지 않 발굴, 과충만이 수행할 수 있는 獨自의인 사업개발에 역점을 두어 각종사 的命題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계의 총합체인 科總의 創立15 하고 있는지, 지난 15년간의 발자취

會員團體數 科學立國 爲해

初創期 (1966~1971)

어려움克服코 기틀 마련에 成功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1966년 5월 19일 「發明의 날」을 기해 열린 제 1회 全國科學技術者大會에서 科學技術學會 및 團體의 유기적인 결합과 體系的인 계획운영을 통해 國家發展에 기여하는 전국과학기술인들의 總意에 의해 聯合會結成案이 採擇됨에 따라 당시 국내과학기술 진흥육성에 주축을 이루었던 科學振興協會와 技術總協會를 흡수, 一元化된 團體로 創立되었다.

이렇게 해서 설립을 보게 된 聯合會는 同年 9월 24일 국내 71개 학회 및 협회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創立總會를 열고 초대 회장에 金允基박사, 부회장에 明柱完(보건부문)·權寧大(이학부문)·金海琳(공학부문)·金浩植(농수산부

문)·金東一(종합과학기술부문)씨등 과학기술계의 중진들로 임원을 선출하고 定款을 비롯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12월 26일에는 經濟企劃院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이듬해 1월 21일 법원에 등기를 필 함으로써 정식으로 발족하게 됐다.

설립 당시의 거창한 취지와 의욕과는 달리 초기에는 예산부족등 여건미비로 팔목한 만한 소기의 성과를 이룰수 없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政府에 科學技術振興政策을 다룰수 있는 獨立된 機構의 新設을 建議하는 한편 創立이듬해인 67년 5월 19일 제 2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를 개최하고 과

科總의 어제와 오늘

24일로 創立15주년을 맞이했다.

農水産, 保健, 綜合분야등 160여회원단체를 포용하는 과학기술계
 취임한 이래 불과 4년동안 質的으로나 量的인면에서 과거 10년을 능가하
 고 새 福祉國家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創造的이고 革新的인 새로운 사업을
 업을 수행하는데 總力を 경주하고 있다. 80년대 科學國家 建設이라는 國家
 周年을 맞이하여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왔으며 또 어떠한 일들을
 를 실적을 중심으로 음미해 본다. <編輯者 註>

163個로 成長 有機的인 努力

학기술인들의 衆知를 모아 「과학의 날」제정을
 對政府 건의했다. 그리고 68년 2월 29 일에는
 「과학의 날」제정을 건의, 科學技術處 發足日인
 4월 21 일을 「과학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
 를 가졌다.

「科學의 날」기념 행사에서는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한 有功科學技術人을 표창하는 한편 科學
 技術賞을 제정, 시행하여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과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했다.

「과학과 기술」지 창간

1968년 科總은 과학기술진흥 홍보사업의 일
 환으로 「과학과 기술」이라는 題號로 잡지를
 창간하였다. 국내과학기술계의 동향 및 정보교류
 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
 해 창간된 이 잡지는 과총의 機關誌이긴 했으나
 당시 학회지를 제외한 과학기술계통의 잡지로서

는 유일한 종합과학기술전문지로 폭넓게 愛讀됐다.

이 잡지는 원래 季刊으로 발간되었으나 69
 년 3월 21일 자매지로 화보인 「과학과 기술」
 (타브로이드판)을 월간으로 창간, 71년 12월31
 일까지 병행 발간하다가 72년 1월 31일자로 월
 간지로 합병되었으며 국내의 과학기술단체, 학
 계, 경제계, 회원단체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과학기술회관 着工

초창기에 있어서 과총의 또 하나의 실적이라
 고 하면 과학기술인의 숙원인 「과학기술회관」
 건립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과총을 비롯한 산하 과학기술단체들은
 자체회관을 마련하지 못하고 셋방살이 신세를
 면치 못했으므로 과총이 주축이 되어 이들을 수
 용할 회관건립은 시급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이에 과총은 1967년 회관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회관건립기성회를 발족시키고 본격

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건물부지와 건설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와 산업계의 협조로 1971년 10월 8일 드디어 강남구 역삼동 역삼공원의 대지 2,500

평위에 과학기술회관을 착공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인들의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된 것이다.

育成期 (1972~1977)

學會育成, 海外交流에 눈돌려

초창기에서 최소한의 활동기반을 조성한 聯合會는 이 기반위에서 규모는 적으나 착실히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政府의 지원으로 학회육성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새마을기술봉사단을 창단하여 農漁村近代化에 적극 참여하고 과학기술종합심포지움을 개최, 최신과학기술교류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한 천신만고 끝에 과학기술인의 숙원인 과학기술회관을 착공 7년만에 준공하고 연합회의 외형적인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회원단체의 수용능력을 갖추었으며 海外科學技術 교류를 위해 국제기구에도 가입하는 등 內實을 기하는 데 주력해 나갔다.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對外的인 事業들이 시작됐으나 그 활동은 극히 미미한 상태로서 명맥만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머물렀다.

傘下學會에 보조금지급 개시

1972년부터 科總은 산하학회의 육성지원을 위해 政府의 협조를 얻어 학회학술활동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전년도 학회학술활동에 의거, 학회지발간 및 학술활동등에 증점지원키로 하고 첫해인 72년에는 118개 회원중에서 55개 학회에 1,120만원, 73년에는 55개 학회에 1,338만원을 지원했으나 76과 77년도에는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46개 학회에 900만원을 지원했다.

이렇듯 초기에는 예산부족과 관계당국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만족할 만큼의 지원을 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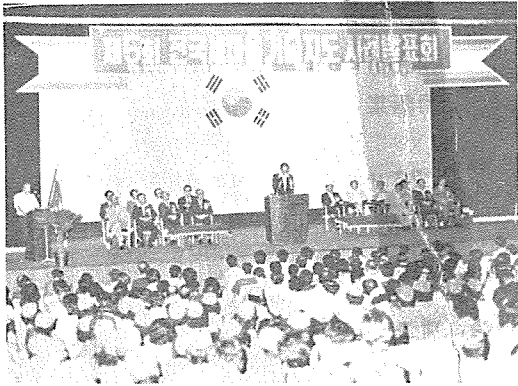
그러나 74년부터는 정부지원이 삭감됨에 따라 산학협동재단의 협조를 받아 14개 학회에 1,010만원, 75년에는 23개 학회에 1,340만

◆ 分野別 學會育成 補助金 支給表 (정부보조)

(단위: 천원)

部 門 別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學 會 數	補 助 金	學 會 數	補 助 金	學 會 數	補 助 金	學 會 數	補 助 金	學 會 數	補 助 金	學 會 數	補 助 金
理學部門	11	3,050	13	3,720	13	3,100	12	1,900	7	1,200	6	1,250
工學 "	11	3,300	11	4,860	11	4,300	11	3,050	6	2,350	7	2,500
農水産 "	14	2,450	14	2,700	12	2,250	12	1,800	10	2,250	10	2,000
保健 "	14	1,700	12	1,300	11	1,400	11	1,450	13	1,700	15	2,100
綜合 "	5	700	5	800	7	950	7	800	10	1,500	8	1,150
計	55	11,200	55	13,380	54	12,000	53	9,000	46	9,000	46	9,000

원, 76년도에는 14개 학회에 1,270 만원, 77년도에는 20개 학회에 1,320 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학회지원사업을 유지하여 왔다.



새마을기술봉사단 創團

1972년 科總은 새마을운동의 현장에 과학기술인력을 전문분야별로 참여시켜 현지실정에 적합한 과학기술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능어촌근대화를 위한 영농의 과학화와 나아가서는 전국민의 과학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순수민간봉사단체인 「새마을 技術奉仕團」을 창단했다.

奉仕團은 초기에는 새마을기술교본발간, 방송신문등 매스컴을 통한 기술지도와 글심을 통한 지도등 수동적인 활동이 고작이었으나 74년 1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각도에 道새마을기술봉사단이 설치되면서 1마을 1과학자 기술결연사업을 전개하는등 점차 능동적인 활동으로 전환하게 됐다.

새마을봉사단은 科總의 中央會內에 사무국을 두고 農水産분과, 環境改善분과, 새마을공장분과, 保健衛生분과, 綜合分科등 5개분과에 전문위원을 두어 매스컴을 통한 기술지도와 자료발간, 기술상담 및 현지기술지도를 실시했으며 전국 9개도단조직을 통해 전국 200개 마을과 1과학자 1마을 기술결연을 맺어 연고지 마을에 대한 기술애로사항을 현지지도 해결하여 영농의 과학화를 도모했다.

76년도에는 제 1회 전국새마을기술지도 사해

발표회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종합평가하고 활동방향을 재정립했으며 홍보 슬라이드를 제작, 각도에 배포하여 홍보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종합심포지움 개최

74년 8월 科總은 국내외 과학기술자들의 상호유대와 최신과학기술정보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와 공동으로 과학기술종합심포지움을 KIST 主官으로 개최했다. 흥릉의 서울연구단지에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개최된 이 심포지움은 재미과학자 144명과 국내과학자 500여명이 대거 참가한 국내 초유의 대규모 종합학술행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Energy, 환경, 자원, 생산성 및 산업구조, 중화학공업, 정보과학, 과학기술교육, 특수산업 등 8개분야에 걸쳐 103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학술정보교류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동시에 재외 과학기술인들에게 조국의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조국관을 심어주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듬해 4월에는 재구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광복 30주년 기념 科學技術綜合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 이 대회에 참석했던 재구과학자 尹稷瀾박사가 국내에 유치되는등 이 대회가 고급인력의 국내유치에 창구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심포지움은 76년부터는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로 명칭과 규모를 발전시켜 개최하고 있다.

科總은 이밖에도 국제과학기술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76년 7월 27일 太平洋科學協會 (The Pacific Science Association)에 준회원으로 가입했으며 11월 12일에는 美國科學振興協會 (AAAS)와 결연을 맺는 등 國際間的 親善과 學術交流에 첫발을 내딛었다.

科學技術會館 준공

1976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과총은 科學技術會館이 着工 5년만에 완공되어 9월 24일

창립기념일을 기해 준공식을 가졌다.

창립 10 년만에 자체 회관을 갖게 된 과총으로서는 연합회가 갖춰야 될 외형적인 기틀이 마련된 뜻깊은 결실이었다.

회관이 완공되자 國土計劃學會 등 과학기술단체들이 속속 입주함으로써 과학기술회관은 명실공히 과학기술인들의 전당이 되었다.

과학기술회관은 정부지원 2 億원과 산업계 및 과학기술인의 정성이 담긴 1 億 5,804 만 7,627 원의 출연금등 총 3 億 5,804 만 7,626 원이 투입된 지하 1 층, 지상 9 층 옥탑 2 층등 총 12 층의 현대식건물로 완성을 보게된 것이다.

科學技術用語의 統一標準化

1972 년 과학기술용어제정사업이 國務會議에

跳躍期 (1978~1981)

振興策 등 建議코 代辯者 役을 遂行

科總 15 年史에 있어서 이 기간만큼 눈부신 발전과 도약을 거듭한 시기는 없었다.

閔寬植박사의 會長취임으로 새로운 活力素를 얻은 과총은 그동안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 能動的이고 새로운 과총상을 鼎立하는契機를 마련했다. 事務處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既存事業을 더욱 活性化시키고 時代的要求에 副應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事業을 발굴, 수행하여 과거 10 년을 능가하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

특히 이 기간동안에는 학회학술활동지원사업을 대폭확대하는 한편 국민생활화운동의 선도주자로 새마을기술봉사단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과학화모범사례 발표회등 풍토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국가연구과제도출사업과 과학기술정책, 방재과학, 국민주택등의 조사연구를 통해 과학기술계가 안고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발전책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당국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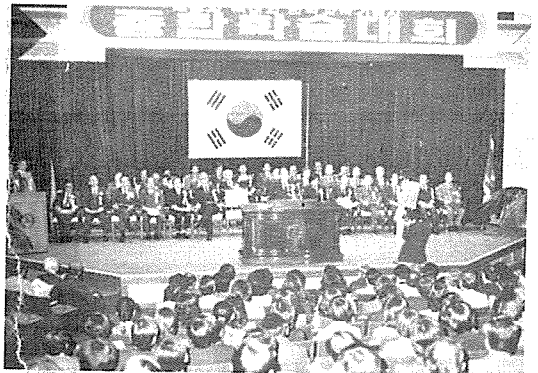
서 의결됨에 따라 科總은 科學技術用語 통일표준화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먼저 1 단계로 무질서하게 잘못 使用되고 있는 生活技術用語를 우리말로 제정, 보급키로하고 73 년에는 生活技術用語 4,746 개단어와 새마을 技術用語 355 단어등 총 5,101 단어를 수록한 生活技術用語集 (문고판) 을 발간, 각계에 무료 배포했다.

또한 76 년에는 연암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자연과학계 53 개분야를 총 망라한 과학기술용어 139,000 단어를 종합 집대성한 과학기술용어집 제 1 집을 발간, 정부주요기관 및 과학기술단체에 무료, 배포함으로써 國語淳化와 科學技術振興에 기여했다.

요로에 전의하기도 했으며 KIST가 主管했던 종합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강연회와 세미나를 直接主催 主管하여 국제과학기술교류를 主導했다.

이밖에도 회원단체 사무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30 개단체 469 명 (피부양자 1,011 명)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한편 회원단체와의 橫적인 협력을 강화했다.



閔寬植박사 제 5대회장 취임

1978년 2월 28일 科總은 대강당에서 제 13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 5대회장에 閔寬植박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閔寬植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과학기술인의 정당한 사회인식과 권익보장」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분위구조성」 「학회육성을 위한 지원책 강구」 「연합회의 면모쇄신」 등을 骨子로한 청사진을 밝혀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閔會長은 취임후 바로 사무처의 기증을 정비 강화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능력을 조직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科總이 과학기술계의 대변자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기 시작했다.

4월 21일 과학의 날, 그간 과총을 이끌어온 金允基박사와 과학기술인 유공자 17명에게 포상이 있었고 8명의 과학기술인에게 표창을 했다. 과학의 날 과총은 회원단체장으로 구성된 評議會를 갖고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현안문제를 협의, 衆和를 모아 고위층에 건의하는 등 과학기술인 대화의 광장을 마련했다.

7월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힘을 빌어 개최했던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를 명실공히 단독으로 主權主管하여 과총의 능력을 對內外에 과시하기 시작했다.

그간 4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던 대회에 비해 5차대회는 재미과학자 160명과 가족 143명 그리고 국내과학기술인 3,076명이 참석한 국내 최대의 맘모스 행사로서 그 성과는 매우 컸다.

서울대 판악캠퍼스에서 가진 학술 발표에서는 12개 분과에서 250편의 논문이 발표되는 등 국제수준을 웃도는 전례없는 규모였는데 특히 그동안 음성적으로만 축진해왔던 재외한국과학기술인의 국내유치방법을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할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고급과학기술인력 유치의 합리적이고 양성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직적이고 빈틈없는 대회진행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기도 했다.

9월에는 醫學用語 133,000 단어를 표준화하여 수록한 과학기술용어집 제 2집(4×6 배판,

1,349면)을 발간,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등에 무상으로 배포했다.

79년에 들어서면서 科總은 새마을운동의 제 2단계 점화라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던 전국민과학화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민과학화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품토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과학기술진흥시책 연구사업등 차원높은 정책 연구사업을 전개하였으며 80년도에 들어서면서 80년대 과학국가건설이라는 國家的命題를 달성하기 위한 터전구축에 총력을 경주했다.

國家的 大型課題 推進

80년대 국가연구과제도출사업은 국가연구사업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국가연구과제를 도출하여 그추진방법을 모색하므로써 우리나라 科學技術振興에 크게 寄與했다. 전국의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얻은 444개 과제중에서 資源에너지 9개 과제, 食糧 4개, 材料素材工業 5개, 情報産業 및 시스템제어 2개, 環境 및 保健 3개 그리고 기타분야에서 총 25개 과제를 도출하고 대상과제별로 도달목표와 추진전략안을 마련한 바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施策을 조사연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상설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발표회를 갖는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또 과학기술진흥정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치된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회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對政府建議書를 작성, 정부와 헌법개정관계요로에 건의하여 新憲法전문 및 제 123조, 128조에 반영시켜 과학기술발전기반을 확고히 했다.

또 지진, 수해, 한발등 각종재해대책의 방재 과학연구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구성된 防災科學研究위원회는 氣象災害를 비롯, 農業, 農工, 土木災害와 공해분야등 각분야별로 조사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조사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

한 연구발표회를 韓國農工學會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國民住宅問題研究위원회도 大韓建築學會, 國土計劃學會와 공동으로 주택문제연구과제를 수립하고 이에대한 연구조사서발간과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바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여론에 따라 “科學技術者倫理要綱”을 “科學技術人的 信條”로 명칭과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새로 制定하여 제 13회 과학의 날에 공포 採用하여 과학기술의 창달과 진흥을 통해 국가발전과 인류복지사회가 이룩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다짐하는 과학기술인의 意志를 표명했다.

또한 매년 기념행사로만 일관했던 「科學의 날」을 더욱 뜻있게 하기 위해 科學技術研究세미나를 개최, 60년대 및 70년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80년대 과학기술의 전망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했다.



國民生活科學化 土着에 주력

새마을운동의 제 2 단계점화라는 차원에서 국민생활과학화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전국민과학화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7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79년도에는 서울市民을 대상으로한 제 1회 서울시민과학의 밤 행사를 개최, 과학기술을 예술무대로 끌어내어 어렵게만 생각하던 과학기술을 “市民들에게 하던된다”는 관념을 심어주었으며 79년부터 해마다

과학화모범사례를 발굴 보급하여 과학화운동을 확산 보급시키는데 先導的 役割을 해 왔다.

全國民의 科學化를 촉진하고 새마을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과학기술을 지원해온 새마을기술봉사단활동 사업은 전국 300개 마을과 기술결연을 맺어 15,631회에 걸쳐 현지기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신문, 방송등 매스콤을 통한 기술지도를 5,148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다섯차례에 걸친 기술지도사례발표회를 통해 우수기술지도사례를 발굴, 전국에 확산 보급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福祉마을기술지도, 主産·特化團地 조성사업을 실시, 道別로 風土에 맞는 經濟作物을 선택하여 신기술보급과 집중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시범 단지를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년부터는 과학화운동을 각종기념일등의 국가행사와 연계시켜 「科學大衆化」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 매스콤을 통해 계도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풍토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國際科學技術交流 증진

國內 및 재외한국과학기술자와의 학술연구발표와 기술정보교환을 통해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母國의 科學技術開發과 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온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는 해를 거듭할수록 과학기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범국가적 학술제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7 차대회부터는 전문분야별분과발표회에 특별강연과 워크샵을 통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선정, 발표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를 높였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韓國人 科學技術者들의 국내취업알선은 물론 과총내에 상설기구로「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 協力委員會」를 설치하여 재외한국과학기술자의 취업알선 및 자문과 국내취업희망자의 명단을 작성, 각기관에 통보하고 연구소 및 대학과

기업체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아 이를 재외과학기술자협회에 의뢰하는등 국내유치에 따른 창구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의 국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계의 권위자를 초빙하여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에 대한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그 첫번째로 日本學士院長을 역임한 Kiyoo Wadachi 박사를 비롯, 東京工藝大學長인 Sinichi Kikuchi 박사등 일본 원로과학기술인과 우리나라의 李泰圭박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국제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져나갔다.

과총은 또 새로이 國際科學技術 민간기구인 世界技術團體聯合會(WFEO)와 太平洋地域工學團體聯盟(FEISEAP)에도 가입하여 총회등에 대표를 파견하는등 국제교류활동을 강화했다.



學會 學術活動 支援擴大

科總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학회 학술활동조성사업은 해마다 증액되어 79년에는 전년도보다 4배가 증액된 7천만원(국고 4천만, 산학 3천만원)으로 총 95개 학회(국고 66개, 산학 29개 학회)에 지원했으며 80년에는 전년도보다 3배가 증액된 1억 7백만원의 지원금(국고 7천만, 산학 3천 7백만원)으로 105개 학회(국고 71개, 산학 34개 학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억 6천 3백만원의 지원금(국고 1억, 산학 6천 3백만원)을 확보하여 산하 123개 학회(국고 84개, 산학 39개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산학협동재단지원금 보조실적

(단위: 천원)

년 도	구 분	학 회 수	금 액
1974		14	10,100
1975		23	13,400
1976		14	12,700
1977		20	13,200
1978		23	13,600
1979		29	30,000
1980		34	37,000
1981		39	63,000
계		196	193,000

◆ 分野別 學會育成 補助金 支給表 (정부보조)

(단위: 천원)

部 門 別	年 度	1978		1979		1980		1981	
		學 會 數	補 助 金	學 會 數	補 助 金	學 會 數	補 助 金	學 會 數	補 助 金
理 學 部 門		5	1,400	7	5,600	19	30,800	20	29,900
工 學 部 門		7	2,900	2	1,200	1	500	1	700
農 水 產 部 門		9	2,050	9	7,400	10	8,050	11	13,800
保 健 部 門		13	2,150	28	13,600	24	17,500	31	35,100
綜 合 部 門		8	1,500	20	12,200	19	12,100	21	20,500
計		42	10,000	66	40,000	73	68,950	84	100,000

기초과학과 순수학회의 육성을 위해 학회지 발간, 학술발표회, 국제분담금등을 지원해 온 과총은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科學技術文獻刊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을 종합정리하고 체계화한 “韓國科學技術 30年史”와 “科學技術用語集”을 발간한데 이어 年次計劃에 따라 시급한 “科學技術用語 辭典” 및 “科學技術人名辭典” 편찬을 추진하고 국내유일의 종합과학기술전문지인 “과학과 기술”을 매월 발간하여 과학기술진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개화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과정을 일목 요연하게 체계화한「韓國科學技術 30年史」를 발간, 과학기술계를 비롯 학계, 경제계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이 책의 편찬사업은 과학기술계의 여론에 따라 70년대후반부터 관심사가 되어왔으나 예산의 장벽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79년 소요예산을 확보함으로써 4월부터 본격적으로 편찬사업에 착수, 14개월만인 80년 12월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또한 폭주하는 선진과학기술정보와 지식을 소화 흡수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토착화하고 대중화함으로써 과학기술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과학기술용어의 사전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科總은 이미 간행된 과학기술용어집 제 1집을 기초로 해설과 도해를 작성하고 있다.

1차년도인 78년에는 數學 1,745개, 物理 2,903개 化學 2,352개 용어등 7,000 용어에 대한 해설작업을 실시하고 79년에는 動物·物理·植物·微生物學 9,000用語, 80년에는 天文·氣象·化學·植物學 8,000用語에 대한 해설작업을 실시했으며 금년에는 地質·海洋·數

學 7,200用語에 대한 해설을 완료하게 된다.

내년도에는 우선 數學·化學·物理學등 3개 분야 7,000 용어에 대한 사전을 편찬하게 되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전분야에 걸쳐 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발전의 주축이 되고있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현황을 파악하여 과학기술인력의 개별적인 전공과 업적을 구체적으로 수록, 과학기술 및 기능두뇌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科學技術人名辭典」 편찬사업은 연내 발간을 목표로 수록 대상자로부터 資料를 수집하고 있다.

9월 8일 현재 434개 기관에서 8,202매의 인명카드를 접수한 과총은 9월 20일까지 최종 접수된 資料를 종합편집하여 편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유일의 종합과학기술지로 폭넓게 읽고 있는「과학과 기술」지는 매월 時事性있는 주제를 특집으로 마련, 최신과학기술정보 및 화제를 게재하며 과학기술계의 문제점을 다루는 등 과학기술계의 대변지로서 면모를 갖추나가고 있으며 외국의 과학자에게도 배포하여 상호정보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會員團體와의 협력 강화

이밖에도 科總은 會員團體事務職員의 후생복지를 위해 醫療保險加入을 적극추진, 금년현재 30개團體 469명(피부양자 1,011명)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고 있으며 수시로 산학학회(단체)장 및 사무국장회의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관심사와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모색하는 등 회원단체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실에만 파묻혀있는 과학기술인력의 친목도모를 위해 과학기술인 바둑대회를 비롯 테니스대회등을 개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 평면적인 협력의 기회를 갖고 있다.